2022년 1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호치민지사 KATI 수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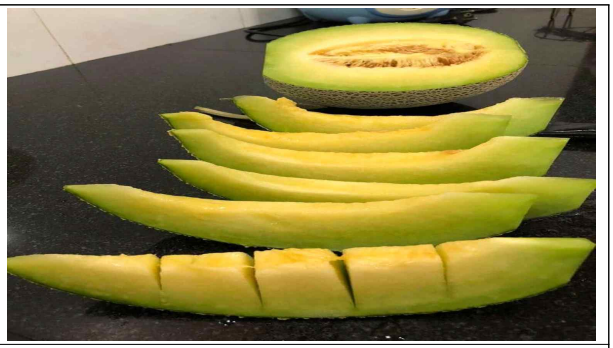
[베트남_호치민] 베트남, 현지 참외 유통 현황

2022년 1월 12일, 호치민지사

□ 베트남 참외 및 멜론 현황

- 참외와 멜론은 식물학적으로 같은 작물로 이들이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화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전해진 것이 서양 멜론이고 동양으로 전파돼 정착한 것이 우리나라의 참외임
- 참외는 영어로 코리안 멜론(Korean melon)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 붙여진 이름임
- 베트남에는 멜론의 형태만 있으며 특히, 쿠쿠미스메론(Cucumis melo)은 베트남 남부 호치민과 빈증(Bình Dương)성에서 가장 많이 수확함
- 베트남 메론 중 하나인 쿠쿠미스멜론(Cucumis melo)은 2종류(속이 노란색, 연두색)가 있으며 쿠쿠미스메론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70~80일 정도 걸리며 메론 1개의 무게는 1.5~3.5kg, 가격은 kg당 60,000~75,000동임
- 쿠쿠미스멜론 외에도 여러 종류의 멜론이 있지만 한국 참외와 비슷한 품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베트남 내에서 한국산 참외 종자를 활용하여 한국 참외를 재배하는 현지인들이 있음

속이 노란 멜론



속이 연두색인 멜론

출처: hoaquafuji, hatgiongthanhnga

□ 한국산 종자 활용 한국참외 현지 재배현황

- 베트남어로 참외는 즈어 레 한국(Dưa lê Hàn Quốc)또는 즈어 레 방 한국(Dưa lê vàng Hàn Quốc)이라는 명칭으로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음
- 베트남 북부 박닌(Bắc Ninh)성 및 박장(Bắc Giang)성 등에서 한국산 종자를 활용한 참외를 재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현지인들이 있음

- 박닌성에서 수확하는 참외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박장성에서 수확하는 참외는 비닐하우스 2천m2에서 1년에 3번 수확을 하며 평균 수확물량은 4톤으로 참외 품질에 따라 35,000~70,000동/kg으로 판매함(수확기간: 60~70일)

<table>
<tr><td> </td><td> </td></tr>
<tr><td>QR코드 스티커</td><td>박장성 참외 농장</td></tr>
</table>

출처: snnptnt.bacgiang.gov.vn

□ 시사점

- 참외는 검역해소가 아직 안된 품목으로 현재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며 현지에서는 한국산 참외 종자를 활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앞으로 한국산 종자를 활용한 사례가 증가할 경우, 추후 한국산 참외를 수출하는 업체는 한국에서 재배한 참외만의 장점을 나타내는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참외는 여름철 수분공급 및 피로회복으로 좋은 과일로 특히 엽산이 풍부하여 임산부에게 좋으며, 태아의 척추신경과 뇌신경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일이기 때문에 성인 여성 1인당 평균 출산률 1.53명인 베트남에 유망한 품목으로 보임
- 베트남에는 금을 사는 날(음력 1월 10일)이 있을 정도로 현지인들은 금을 좋아하며, 베트남어로 참외가 즈어 레 방 한국(Dưa lê vàng Hàn Quốc)으로 방(Vàng)은 노란색 혹은 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참외를 수출할 경우 베트남 금 문화와 연계하여 마케팅을 할 경우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조링크

1. 「Dưa lê Hàn Quốc ngon xuất sắc vượt tâm dịch Covid-19 Bắc Ninh ra Hà nội, giá 75,000 đồng/kg không đủ mà bán」, danviet.vn, 2021.06.04
2. 「Dưa lưới ruột vàng-ruột xanh」, hanoimoi.con.vn, 2020.05.10.
3. 「Việt Yên: Trồng dưa le Hàn Quốc lãi 100 triệu đồng/vụ」, snnptnt.bacgiang.gov.vn, 2020.10.03.